

Veri 경제동향과 전망

1996년 9월

동향과 전망

제 1 장 국내경제	5
제 2 장 해외경제	29
제 3 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35

부록

경제정책정보	43
주요경제통계	50

한국경제연구원

Public Relations Dept. of KIERI
한국경제연구원

동향과 전망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2. 민간소비
3. 고정투자
4. 대외거래
5. 원화환율
6. 통화금융
7. 금리 및 자금사정

제2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2. 국제금리
3. 국제원자재가격

제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기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2. 96/97년 경제운영방향

제 1 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1) 96년 2분기 및 최근 경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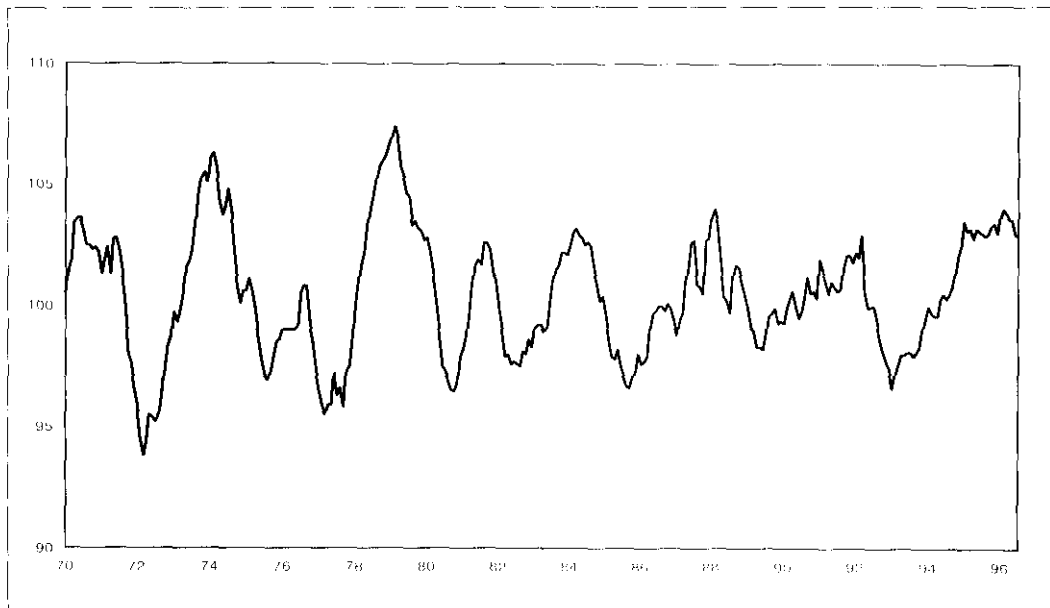
-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199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에 의하면 우리경제는 6.7%(이하 GDP기준) 성장에 그침으로써 지난 4/4분기중(6.8%)에 이어 다시 6%대의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3/4분기중의 산업활동도 지속적인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냄.
- 지난 1/4분기중 최종소비지출 증가세가 95년 평균수준(7.2%)으로 회복되고 엔저로 둔화추세에 있는 수출이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증가세(24.1%)를 나타낸 가운데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건설투자가 10%나 증가함으로써 7.9%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일시적 반등에 그침. 2/4분기들어 재정사업의 조기집행효과가 약화되고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95년 4분기에 이어 다시 6%대로 하락한 것은 향후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의 전개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점하는 민간소비지출이 95년 1/4분기이후 지속적인 둔화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지출도 2분기중 증가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내수부문이 수출부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을 보임.

동향과 전망

- 7월중 산업활동은 생산이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고증가속도가 빠르고 출하나 판매측면에서의 부진이 지속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을 반영함.
- 7월중 산업생산은 일부 업종에서 파업과 정기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상조업으로 전환하고 재고증가속도가 완화되지 않음으로써 다소 높은 8.0%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기초적으로는 여전히 지속적인 둔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6월과 7월을 평균한 산업생산증가율은 5.9%로 1분기의 8.6%, 2분기의 7.3%의 둔화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음.
- 도소매판매액지수나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로 본 소비활동도 산업생산추세와 같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2분기보다는 6-7월 평균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 생산과 내수의 둔화보다 수출용 출하증가율이 더욱 빠른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산업활동둔화는 수출부진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미국달러로 표시된 월별수출액은 7·8월에 걸쳐 전년동월비 절대액면에서 감소를 나타내어 심각한 부진을 나타내고 있음.
- 투자활동도 설비투자가 지난 4분기이후, 건설투자는 2분기이후 급격한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들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이 현저해지고 있음. 특히 임대주택공급은 다소 늘고 있으나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40%내외의 감소를 기록, 연간 주택공급규모는 95년중 61만9천호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3/4분기중에도 거시경제는 수출부진의 심화와 더불어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불가압력이 높아지며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역조건이 악화과 자금시장불안요인은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음.

- 2/4분기중 5%미만으로 급격히 둔화된 달러표시 수출액증가세는 3/4분기들어 감소세를 나타냄으로써 수출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하락에 의한 무역수지적자의 확대와 수출기업의 채산성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 상반기중 7%대 성장을 지지했던 민간소비지출(7.3%)증가세가 3/4분기중 6%대로 떨어지고 그동안 부진했던 재고조정도 하반기중에는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도 지속적인 위축국면이 예상됨.
- 투자면에서는 비교적 높게 잡혔던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계획이 크게 수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해 하반기이래 급격한 설비투자둔화추세가 올 하반기중에는 멈추고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수준의 낮은 증가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건설투자는 7월중 일시적인 요인(주차장규제 등)에 의해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늘었으나 국내건설수주는 1/4분기중 공공부문의 발주증가이후 급격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중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해 하반기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9%나 증가하였음.
- 실업자수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계절조정실업율은 5월이후 다시 2%대로 상승하고 2/4분기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지고 재즈업취업자수가 감소함으로써 경기하강의 초기국면에서의 실업증가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중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6년 2월을 정점(104.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에는 102.9로 낮아졌음. 지난 번 경기저점인 93년 1/4분기중 동 지수는 97.1이었음.

〈그림 1〉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 달러표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물량기준 출하로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요둔화 속에서도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80%를 상회하는 설비가동율(7월중 82.7%)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7월중에도 재고증가율이 18.3%에 달하는 등 2/4분기 이후 20%내외의 재고증가가 향후 재고고정에 따른 생산위축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대외불균형심화)성장세가 둔화되는 경상수지적자가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대외거래 불균형이 거시정책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수지외에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적자도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올해들어 7월말까지 적자가 지난해 연간경상수지적자 규모(89.5억불)보다 많은 116.6억불에 달함.

- 엔화 가치가 9월15일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달러화에 대해 10% 절하되고 원화에 대해서도 3%가량 절하됨으로써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의 수출주력품목들의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한편 설비투자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지난 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제시황이 좋지 않은 반도체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 조선 및 기계류 등 주력수출상품들이 급격한 엔저로 2/4분기중 3.5%의 낮은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2/4분기중 6.8%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됨. 상반기중 무역적자는 52.1억불 그리고 여행수지적자, 로열티 지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적자폭도 39.8억불에 달해 경상수지적자는 이미 지난 해 연간적자규모인 88억불을 상회하였음. 올들어 8월말까지 무역적자누계는 100억불내외, 경상적자누계는 150억불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됨.
- 수출과 함께 경기확장국면을 주도했던 설비투자는 지난 4/4분기중 1.5% 그리고 올 1/4분기중 4.3%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이후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3/4분기 들어서도 높은 채고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당분간 설비투자추이의 회복세는 예상되지 않음.
- 지난 해 하반기중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율(11.2%)을 기록하였던 건설투자는 신장세가 올 1/4분기중에도 이어져 그 증가율은 10.0%에 달했으나 2/4분기이후 건물건설의 위축과 조기발주가 끝나감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올해 발주할 공공사업 5조1천억원중 1분기에 1조3천3백억원, 2분기에 1조7천300억원을 조기발주 및 계약단축형태의 발주가 주내용이며 연간 발주량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경편성 집행이 없는 한 하반기중 발주물량은 그만큼 감소가 예상됨.

동향과 전망

- 지난 해 지속적인 경기확장과 가계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유지한 민간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모두 위축됨으로써 지난 4/4분기중 7.1%의 증가세가 그친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7.5%로 소비심리의 회복세를 반영함. 2/4분기중에는 이같은 소비심리의 회복과 더불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보다 높은 임금상승추이와 4월 총선을 전후한 소비증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3/4분기이후 6%대의 소비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내불가는 최근 물가상승요인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 해외원자재가격이 95년중 상승세가 꺾인데다 5월까지 공공요금의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95년 5월(생산자불가 5.2%, 소비자불가 5.1%)이후의 물가안정추이가 지속됨. 그러나 2/4분기 들어 이상저온에 따른 일부 농수산물가격의 일시적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다소 빨라졌음.
- 2/4분기중 생산자물가(2.8%)는 전년동기(5.9%)에 비해 현저히 안정되었으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5.0%대의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빠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지난해 임금비중이 큰 건설업과 (정부)서비스부문의 디플레이터가 높게 나타나 이들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올 상반기중에는 이들 서비스가격의 상승이 낮은 추이를 보인 반면 식료품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을 주도하였음.

(2) 96년 하반기 및 97년경제전망

- 하반기이후 우리경제는 상반기중 7.3%, 하반기중 6.2%내외 그리고 97년중에는 6.3%내외의 성장률(GDP)이 예상됨으로써 지난 해 4/4분기이후의 성장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됨으로써 저성장과 대외불균형이 심화되는 경기하강국면이 예상됨. 이는 국내시장의 실질적인 개방과 국제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의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와 수출부진과 설비투자수요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이 97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3/4분기중 전년동기보다 달러표시 수출액이 감소한데 이어 4/4분기이후 97년에 걸쳐 제한적인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고 96년중 12%이상 늘어난 수입은 97년중 8%내외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적자규모는 96/97년에 걸쳐 연간 200억불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 수출의 제한적인 신장세 회복이 기대되는 반면 국내수요는 민간수요가 완만한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또한 96년보다 97년에 더욱 둔화됨으로써 97년중 저성장에 따른 신규고용의 감소와 실업증가 등이 예상된다.
- 한편 해외물가는 95년상승에 이어 96년중 비교적 안정추이를 지속한데 이어 하반기이후 원자재를 중심으로 97년중에는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성장둔화과정에서의 수요견인형 상승요인의 둔화와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상승요인의 완화등이 예상된다. 국내물가는 96년중 2%수준에서 생산자물가가 안정된 뒤 97년중 완만한 상승이, 소비자물가는 4/4분기이후 오름세가 둔화되는 추이가 예상됨으로써 97년중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생산자물가는 96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동향과 전망

〈 표 1 〉 1996/1997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 간	연 간	1/4	2/4	3/4	4/4	연 간	연 간
국내 총생산	8.6	9.0	7.9	7.1	6.2	6.1	6.8	6.3
제조업	10.4	10.7	7.8	6.9	6.1	4.4	6.2	6.1
총소비	7.0	7.2	7.2	6.6	6.2	5.8	6.5	6.0
민간소비	7.6	7.9	7.5	7.1	6.4	6.1	6.7	6.3
고정자본형성	11.8	12.4	7.4	2.7	4.4	5.8	5.0	3.6
설비투자	23.6	15.9	4.3	3.4	3.0	4.6	3.8	3.3
건설투자	4.5	9.9	10.2	2.1	5.5	6.7	5.9	3.9
생산자 물가	2.7	4.7	3.1	1.7	1.8	2.9	2.4	3.3
소비자 물가	6.2	4.5	4.9	5.2	5.2	5.1	5.1	4.9
경상수지	-4530.7	-8947.6	-4350.4	-5474.7	-6969.1	-3682.9	-20477.1	-19841.1
무역수지	-3145.2	-4746.6	-2390.5	-3667.2	-5814.9	-2976.6	-14849.3	-14156.2
상품수출	93676.4	123202.5	31579.0	33410.3	30274.3	34097.7	129361.3	141443.9
증가율(%)	15.7	31.5	20.8	6.6	-4.8	0.4	5.0	9.3
상품수입	96821.7	127949.1	33969.5	37077.5	36089.2	37074.3	144210.5	155600.1
증가율(%)	22.4	32.1	18.4	12.1	10.7	10.4	12.7	7.9
무역외수지& 순이전수지(외)	-1385.5	-4201.0	-1959.9	-1807.5	-1154.2	-706.2	-5627.8	-5684.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96년 3/4분기 이후는 본원 예측치

주 : 국제수지부분의 단위는 백만달러

2. 민간소비

(1) 최근동향

- 전반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민간소비는 96년 2/4분기 중 7.1%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95년 1/4분기(8.8%)를 정점으로 한 완만한 둔화추세가 지속됨.
- 소비형태별로는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에어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과 해외여행 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었음.
- 4/4분기 중에도 민간소비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표 2 〉 최근 민간소비와 형태별 가계소비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4	2/4	3/4	4/4	연간	1/4	2/4
민간소비	8.8	8.1	8.0	7.1	7.9	7.5	7.1
가계소비	8.8	8.1	8.1	7.1	8.0	7.6	7.2
내 구 재	15.9	9.5	11.4	9.9	11.6	9.4	11.4
준내구재	9.8	9.9	10.8	7.1	9.3	6.5	7.0
비내구재	6.4	7.0	5.5	5.1	6.0	5.5	4.2
서 비 스	8.6	9.1	8.5	7.5	8.4	7.7	7.1

자료: 한국은행

- 2/4분기중 소매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소비재 수입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음.

동향과 전망

〈 표 3 〉 소비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도소매판매액	8.3	8.0	8.7	7.8	7.3	7.4	7.8	8.3	7.0	6.5
도 매	8.9	9.8	7.9	7.0	6.3	6.2	6.9	6.9	4.9	3.6
소 매	7.5	6.1	9.4	8.5	8.1	8.7	8.6	9.8	9.5	9.8
내수용소비재출하	8.8	9.2	12.9	6.6	4.4	6.2	7.4	5.3	7.4	4.7
내 구 재	12.0	12.3	17.4	5.5	10.4	9.3	10.7	6.2	11.2	5.9
비내구재	7.1	7.7	10.3	7.2	1.4	4.6	5.7	4.9	5.3	4.2

자료: 통계청

(2) 96년 4/4분기 및 연간전망

- 민간소비는 당분간 비교적 완만한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 중 민간 소비는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회하는 6.6%, 연간 전체로서는 7.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경기둔화기간이 지속되고, 자산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고정투자

(1) 최근동향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96년 2/4분기중 3.4%의 증가에 그쳐, 지난 3분기간 연속 부진을 지속하였음.
- 기계류 투자는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계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 및 일반산업용 기계에 대한 투자는 부진하여 3.4% 증가에 그쳤음.
- 운수장비 투자는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항공기에 대한 투자가 호조를 보여 3.6% 증가하였음.

〈 표 4 〉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4	2/4	3/4	4/4	연간	1/4	2/4
설비투자	25.5	18.0	22.2	1.5	15.9	4.3	3.4
기계류	33.6	28.4	22.0	8.8	22.6	8.7	3.4
운수장비	6.8	-2.7	23.2	-11.1	2.4	-8.5	3.6

자료: 한국은행

- 당분간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임.
- 2/4분기중 내수용 기계설비 출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기계류 수입도 반전하였으나,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 발주가 늘어나 전분기보다 신장세가 확대되었음.

동향과 전망

〈 표 5 〉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기계수주	22.2	26.9	45.4	26.6	0.9	-1.5	15.8	9.7	22.5
기계류수입허가	87.4	73.6	59.4	79.8	1.7	-7.2	28.2	1.3	-24.6
기계류수입액	44.5	37.6	47.1	34.8	22.9	10.8	27.0	16.0	-1.3
기계류내수출하	21.4	22.0	28.3	30.0	21.1	8.0	21.4	9.0	3.4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96년 2/4분기중 예상밖의 부진을 보이며 4.8% 증가하는데 그쳤음.

-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계속 호조를 보였음.
-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모두 감소하였음.

〈 표 6 〉 최근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건설투자	4.5	7.6	8.8	10.8	11.7	9.9	10.0	4.8	
건물건설	2.2	5.3	11.3	15.3	9.9	10.5	5.8	-1.8	
기타건설	8.1	14.1	4.9	4.2	13.6	9.0	20.8	15.6	

자료: 한국은행

- 당분간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표 7 〉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국내건설수주	19.5	18.5	14.3	21.9	29.8	48.7	21.2	47.4	13.1	7.6
공공	20.3	17.0	27.7	-8.9	51.9	14.6	17.6	156.9	43.6	16.5
건축허가면적	17.0	-1.3	16.2	35.9	-25.6	-12.2	1.0	-7.4	-16.7	-19.6

자료: 통계청

(2) 96년 4/4분기 및 연간전망

<설비투자>

- 경기하강과 함께 설비투자의 둔화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지속적인 투자증설로 기업의 생산능력이 확충되어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거나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시장의 부진, 엔저의 지속 등 기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임.
- 연중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96년중 설비투자의 신장률은 95년보다 대폭 낮아진 5.3%가 전망됨.

동향과 전망

<건설투자>

- 사회간접자본 부분을 제외한 민간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의 둔화와 함께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물의 건설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6년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95년보다는 낮은 7.4%가 예상됨.

4. 대외거래

(1) 최근동향

- 수출은 6월중 전년동기대비 1.7%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7월중에는 3.6% 감소하였음.
- 이는 반도체와 금속제품의 국제가격 약세지속, 자동차·기계류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임.
- 7월중 중화학제품은 선박·화학품 이외에 전자제품, 금속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11.3%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경공업 제품은 섬유류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귀금속은 금중계무역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 9.1% 성장에 그쳤음.
-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7월중 -13.9%의 큰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출은 7.3%증가에 그쳤음. 이는 동남아지역에서 중화학 공업제품의 부진때문임.

〈 표 8 〉 최근 수출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7월	1~7월	6월	7월	1~7월
전체수출		104.9 (37.8)	687.3 (33.9)	114.3 (1.7)	101.1 (-3.6)	752.1 (9.4)
품목별	중화학	72.0 (51.1)	473.5 (42.2)	77.5 (-2.2)	63.8 (-11.3)	511.8 (8.1)
	경공업	26.1 (14.2)	170.8 (16.6)	29.8 (9.2)	28.5 (9.1)	188.6 (10.4)
지역별	대선진국	53.7 (29.7)	341.9 (29.9)	48.4 (-14.3)	46.3 (-13.9)	342.6 (0.2)
	대개도국	51.1 (47.4)	345.4 (38.1)	65.9 (17.7)	54.8 (7.3)	409.5 (18.6)

자료: 통상산업부

- 수입은 6월중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고, 7월에는 13.6%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자본재와 원자재 도입증가와 소비재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7월중 대선진국수입이 10.6% 증가하였고, 대개도국 수입은 원유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2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동향과 전망

〈 표 9 〉 최근 수입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7월	1~7월	6월	7월	1~7월
전체수입		113.1 (35.6)	765.7 (37.5)	117.1 (-1.1)	128.5 (13.6)	856.0 (11.8)
품목별	원자재	53.5 (30.9)	380.4 (34.9)	58.7 (-1.6)	58.9 (10.1)	431.7 (13.5)
	자본재	47.5 (43.3)	307.1 (42.1)	43.9 (-6.2)	54.3 (14.3)	328.5 (7.0)
	소비재	12.1 (28.9)	78.2 (33.0)	14.4 (22.1)	15.2 (26.0)	95.7 (22.4)
지역별	대선진국	80.3 (38.6)	522.3 (38.3)	78.9 (0.3)	88.8 (10.6)	568.7 (8.9)
	대개도국	32.8 (28.8)	243.4 (35.7)	38.2 (-3.8)	39.6 (20.8)	287.3 (18.0)

자료: 통상산업부

■ 7월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수출부진으로 악화되는데다 무역외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22.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는 수출이 반도체, 철강의 국제가격 약세 지속등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여 16.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무역외수지는 여행경비, 운항경비, 기술용역대가 증가함에 따라 5.5억달러 적자, 1~7월간 4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2) 향후 전망

- 수출은 반도체 단가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수출둔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96년 4/4분기 중 수출은 3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96년 총수출은 1,29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은 소비재 수입 증가세 지속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4/4분기 중 390억 불, 96년 총수입은 1,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무역수지는 수출부진 및 꾸준한 수입증가로 무역적자폭이 확대되어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표 10 〉 최근 국제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연 간	7월	1~7월	6월	7월	1~7월
경상수지	-88.2	-5.3	-65.0	-10.7	-22.8	-116.6
무역수지	-47.5	-1.2	-44.3	-5.0	-16.6	-68.7
수출증가율	30.3	37.4	34.0	0.6	-2.8	9.9
수입증가율	32.0	36.5	37.9	0.0	11.7	12.6
무역외수지	-35.1	-2.3	-18.0	-4.6	-5.5	-41.8
이전수지	-5.6	-1.8	-2.7	-1.2	-0.6	-6.1
자분수지	135.3	25.7	79.9	25.0	-1.4	122.8
종합수지	30.8	16.5	1.34	4.9	-25.8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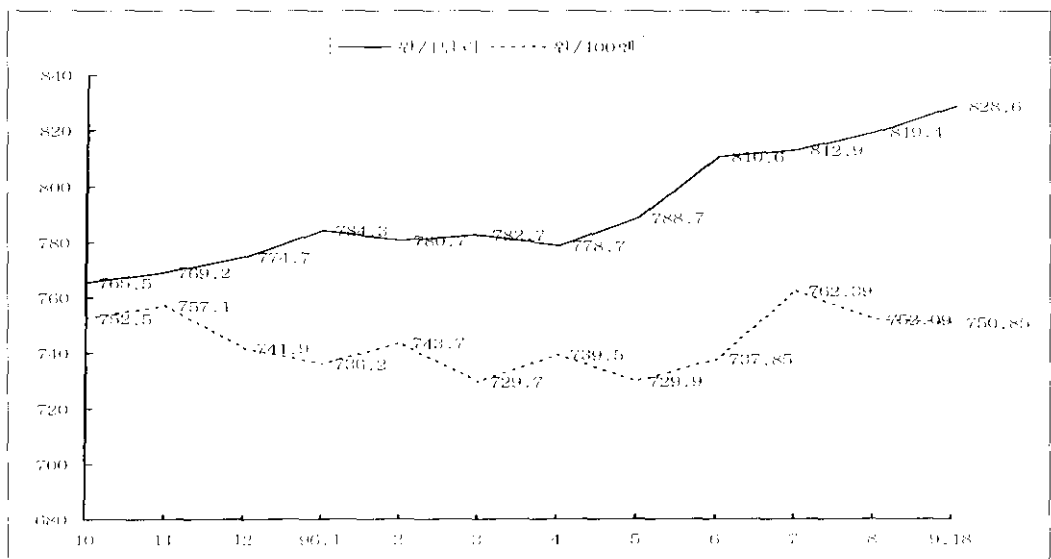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5. 원화환율

(1) 최근동향

- 4월이후 절하추이를 지속하고 있는 원화의 대미환율은 9월중 830원/\$에 접근함. 최근의 원화절하는 미국경제의 호조와 금리인상가능성,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최저금리의 유지 그리고 이라크사태의 악화가능성 등에 따른 달러강세와 엔화약세의 기조가 유지되고 한국의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4/4분기이후에도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적자기조가 크게 축소되지 않음으로써 경상적자가 확대되고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도입도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강세와 엔화약세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화가치는 4/4분기와 97년중 830원/\$내외수준의 평균환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최근의 환율추이



6. 통화금융

(1) 최근동향

- 7월중 총통화 (M2)평잔 증가율은 전월(16.3%)보다 높은 17.1%를 나타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M2+CD 평잔증가율도 15.5%로 전년도나 96년 5월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표 11 〉 최근의 총통화 동향

단위: 억원, %

	1996			1995
	5월	6월	7월	7월
평잔액	1545689	1564722	1595426	1362530
(기간중 증감액)	19464	45468	1485	300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5.3	16.3	17.1	14.9
말잔액	1553991	1599459	1600944	1365866
(기간중 증감액)	31449	19033	30704	1694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6.6	17.4	17.2	13.8
M2 + CD 평잔증가율	15.0	15.5	15.5	14.3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증감내역을 보면

- 정부부문은 4월중 3조3천929억원이 환수되었으나 6월중 1조7천422억원이 공급되었음.

동향과 전망

- 민간부문은 7월중 3조3천598억원이 공급되었음.
- 해외부문은 1조5천199억원이 공급되었음.
- 기타부문에서는 2조2천871억원이 환수되었음.

〈 표 12 〉 부문별 총통화(M2)지표 추이

단위: 억원, %

	1996			
	3월	4월	5월	6월
정부부문	-6221	-33929	1092	17422
민간부문	26934	51944	35951	33598
해외부문	8100	4486	-127	15199
기타	-30975	-4882	-17453	22871
총통화(M2) ⁽¹⁾	-2163 (15.1)	17621 (14.7)	19463 (16.6)	43546 (17.2)

자료: 한국은행

주 : 1) 말잔기준

(2) 4/4 분기 및 연간전망 (96/97)

- 9월 말 추석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통화당국이 자금공급을 신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자금경색이나 금리 급등의 불안은 없어 보임.
- 추석이후에도 급격한 자금 흡수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금리 상승에 대한 안정책으로 통화공급은 17%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추석이후 불가불안과 기업들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자금수요가 지속된다면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97년도의 통화공급은 증가율 자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부양이나 대선으로 인한 재정자금 방출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 총 통화는 올해보다 1~2% 정도 낮은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7. 금리 및 자금사정

(1) 최근동향

- 3/4 분기중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7월중의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0.08%로 전월(0.07%) 보다 0.01% 올랐으나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서울보다 큰 0.12%를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음.
- 상반기중 직접금융자금조달의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문별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크게 상승했으며,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15조 여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나타났음.

〈 표 13 〉 기업의 직접금융조달

단위: 백만원

	1996	1995	변동폭
	1월~6월	1월~6월	1월~6월
기업공개	422,791	1,300	421,491
유상증자	1,530,081	32,131	1,497,950
회사채발행	15,342,387	85,491	15,256,986
전체	17,510,741	122,953	17,387,788

동향과 전망

- 금리는 7월말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 자금시장의 불안함을 반영하여 금리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 특히 7월 말에는 콜금리의 대폭상승을 포함하여 다른 두 금리도 다른 월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음.
 - 단기금리인 콜금리는 7월말 대폭 상승하였고 5월말(11.41)에 비해 8월말(16.51)에는 5.1%의 상승을 보여 불안정한 모습임.
 - 회사채금리는 1/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로 11%~12% 초반에서 유지되었음.

〈 표 14 〉 3/4분기 금리동향

단위: 기말, %

	1996						
	5월	6월	7월	8월	변동폭		
	A	B	C	D	B-A	C-B	D-C
콜금리	11.41	12.37	16.08	16.51	0.96	3.71	0.43
회사채유통수익률	11.03	11.55	12.10	12.14	0.52	0.55	0.04
CD	10.87	12.18	13.7	15.00	1.31	1.52	1.3

자료: 한국은행

주 : 1) 콜금리 : 111日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91日物 기준

(2) 96년 4/4분기 및 연간전망

- 높은 수준의 재고증가율, 무역외수지의 적자지속, 수출부진, 경지침체 등이 자금시장을 당분간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여짐.

- 통화의 유출이 국내자금시장에 유동성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수출부진 등으로 내부유보가 부족해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의 고금리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의 신축적 공급과 기준을 인하와 기업의 투자 축소 등 금리 안정화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96년 4/4분기의 금리는 11.5%~12.5%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97년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금리는 4/4분기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표 15 〉 분기별 금리 및 자금시장 동향

단위: %

	1995					199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회사채	15.1	14.8	13.4	11.9	13.8	11.88	11.18	12.1	12.14
콜	12	12.9	11.4	11.1	12.0	10.48	11.08	16.08	16.51
CD	14.4	14.7	13.6	12.0	13.7	11.62	11.17	13.7	15.00
어음부도율									
전국	0.20	0.21	0.20	0.20	0.20	0.19	0.12	0.12	
서울	0.13	0.12	0.12	0.11	0.12	0.15	0.09	0.08	

자료: 한국은행

- 주) : 1) 콜금리 : 1日物 기준
-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 3) CD유통수익률 : 91日物 기준
- 4) 어음부도율 : 금액기준

제 2 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 표 16 〉 국제환율 추이

	1995	1996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9/17
\$/SDR	1.487	1.459	1.445	1.450	1.442	1.443	1.466	1.455	1.446
¥/\$	102.90	102.14	107.52	104.28	108.37	109.92	107.13	108.38	110.36
DM/\$	1.434	1.481	1.525	1.519	1.533	1.523	1.475	1.488	1.514
\$/£	1.551	1.537	1.535	1.500	1.552	1.552	1.555	1.557	1.556

주 : 각국의 현지환율,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무역협회 “일간무역”

- 7월초 높아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일본 및 독일의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는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임. 그러나 영란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임.

동향과 전망

- 이러한 달러화 강세 지속에 대한 미 수출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18일에 발표된 5월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확대와 독일 재무장관이 7월 10일에 발표한 독일경제의 낙관적 전망과 독일연방은행이 금융긴축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미 달러화는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해 약세를 돌아섬.
- 7월 말 마쓰시다 일본은행 총재가 발표한 금융완화기조 유지 발언 등으로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미 달러화는 8월초 미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일본과 독일의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 그러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1996년중 영국의 실업률 증가 전망 발표 등으로 강세를 시현함.
- 8월 8일 일본 대장성의 일본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다는 발표와 일본 금융정책 결정권자들의 달러화 강세유지 발언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으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8월 7일 발표한 영관은행의 금리인상주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약세를 보임.
- 미 달러화는 8월 11일 일본의 경기회복을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로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본 대장성이 8월 19일에 발표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축소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 강세기조를 유지함. 마르크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독일의 RP 금리 인하기대가 확산되고 영국의 금융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였음. 그러나 독일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영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8월말 미 달러화는 마르크화와 파운드화에 대하여 약세를 시현함.

2. 국제금리

〈 표 17 〉 국제금리 추이

		1995	1996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9/17
미국	재할인율	5.2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프라임레이트	8.7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T/B(90일)	4.93	4.93	5.02	4.99	5.03	5.03	5.17	5.14	5.18
	T/B(30년)	5.95	6.39	6.93	6.90	6.99	6.90	6.97	7.12	7.03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프라임레이트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독일	재할인율	3.0	2.5	2.5	2.5	2.5	2.5	2.5	2.5	2.5
	프라임레이트	5.0	5.0	5.0	5.0	5.0	5.0	5.0	5.0	5.0
유로금리	유로달러	5.63	5.35	5.52	5.50	5.50	5.56	5.69	5.53	5.56
	유로엔	0.63	0.67	0.63	0.67	0.59	0.63	0.75	0.59	0.51
	유로마르크	3.69	3.35	3.25	3.31	3.31	3.38	3.38	3.16	3.09

주 : 미국과 일본의 프라임레이트는 단기이고 독일은 롬바르트금리임.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무역협회 "일간무역"

- 7월초 미국의 경기 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잇따른 발표 등으로 미 연준의 금융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음. 그러나 7월 10일 현재와 같은 물가안정세를 동반한 성장기에는 금융긴축보다는 성장이 자연적으로 둔화될때

동향과 전망

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미 연준에 의하여 발표되었고 공모된 정부채가 부난히 소화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안정세를 보였음.

- 미 노동부와 상무부의 물가안정 및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잇따른 발표 등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7월 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하락안정세를 유지함.
- 이러한 하락기조는 8월초까지 계속됨. 8월 1일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2/4분기의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물가상승 압력의 둔화 등으로 8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모두 안정세를 보임.
- 그러나 8월 중순이후부터 경기 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잇따른 발표로 미 연준의 금융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은행의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섬.
- 금융긴축에 중점을 둔 통화운용지침을 주 내용으로 하는 7월 2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8월 23일에 공개되었고, 재무부의 정부채발행 공고 등으로 인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8월말 미국의 장단기금리는 상승세가 지속됨.

3. 국제원자재가격

〈 표 18 〉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1995	199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브렌트유 (현물, 달러/배럴)	18.65	16.63	18.60	20.33	18.52	18.16	19.28	19.19	20.98
WTI유 (현물, 달러/배럴)	19.60	17.75	19.55	21.50	19.60	19.80	20.95	20.45	22.25
두바이유 (현물, 달러/배럴)	17.78	15.68	16.33	17.50	16.50	16.85	17.65	17.53	19.23
로이터상품가격지수	2,092.2	2,175.5	2,135.6	2,134.0	2,148.4	2,106.6	2,009.5	1,943.0	1,953.7
소맥 (시카고, 센트/부셸)	512.3	519.5	508.0	499.3	508.9	528.8	478.5	440.0	448.5
옥수수 (시카고, 센트/부셸)	369.3	369.0	391.8	409.0	389.9	477.3	516.3	354.3	370.5
동 (런던, 파운드/MT)	2,844.5	2,565.0	2,531.5	2,554.0	2,550.2	2,547.5	2,047.5	1,988.5	2,102.5
알미늄 (런던, 파운드/MT)	1,679.5	1,561.5	1,570.5	1,643.5	1,591.8	1,564.5	1,496.0	1,451.5	1,478.5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무역협회 “일간무역”

1) 원유가격 동향

- 7월초 WTI유 현물가격은 이라크의 구호물품분배계획안에 미국이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라크의 석유수출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노르웨이 북해유전의 일시적 가동 중단과 나이지리아의 송유관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상승세를 보임.

동향과 전망

- 7월 18일 UN이 이라크의 구호물품분배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미국내의 석유 재고가 증가하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WTI유 현물가격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섬. 이러한 하락세는 이라크의 수출재개절차 지침안에 대해 미국이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 23일에 미국내의 석유재고 증가발표가 잇따르면서 하락기조를 유지함.
- 그러나 이라크의 수출재개절차 지침안에 대하여 미국이 유보입장을 표명하면서 승인이 지연되고 TWA기 폭발사건에 대한 이란의 연루설 등으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7월말에는 상승세로 돌아섬.
- 또한 미국의 이란과 리비아 간 제재법안 확정, 이란의 대미 원유수출 중단 촉구, 미군항 공기에 대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과 미국의 보복 등으로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세는 8월에도 이어짐.

2)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동향

- 옥수수 가격은 주경작지인 미국 중서부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옥수수의 성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을 초래함. 그러나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이러한 곡물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 알미늄 등 일부 비철금속의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힘입어 7월 중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소맥가격은 당분간 미국의 소맥수출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LME의 동 재고가 증가함에 따른 동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임. 그러나 칠레의 동 광산의 파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월 말 동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원면의 성장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면가격 또한 상승하여 8월 말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7월보다 10.7P 상승하였음.

제 3 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 지난 2/4분기중 경제성장률(GDP)이 95년 4/4분기에 이어 다시 6%대(6.7%)로 떨어진 이후 3/4분기들어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도 둔화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경제는 하반기이후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을 경험하고 있음. 더욱이 9월중 110엔/달러대로 절하된 엔화약세는 하반기이후 97년중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도 이미 발표된 “9.3종합대책”에 국내수요의 부양을 통한 거시정책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95년 4/4분기이후의 저성장추이가 8분기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하반기중 6.5% 내외로 낮아져 96년중 연간 성장률이 6.8% 내외, 그리고 97년에는 6.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하반기중 미국경제의 고성장과 완만한 일본경기회복세 등으로 엔화약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국제유가의 강세와 견조한 수입증가세가 겹침으로써 96년중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4%에 접근하고 물가압력이 높아지는 등 성장둔화와 함께 대내외불균형이 보다 악화되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이 성장면에서나 교역, 금융면에서 안정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4월이후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절하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엔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95년에 비하여 국제시황이 좋지 않은 조선, 자동차, 전

동향과 전망

자, 석유화학 등의 수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중에도 수출증가세의 현저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반면에 설비부자의 둔화와 원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대외적자가 예상됨. 또한 약세로 전환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절하폭이 수출가격경쟁력을 보전할만큼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절하에 따른 제한적인 효과도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4분기이후에나 무역수지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 볼 때, 일부 주력품목(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중국경제의 긴축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예상보다 지속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엔화약세와 원유가격강세 등은 수출신장세를 제약하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외에 WTO체제의 본격화와 OECD가입추진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폭의 확대 그리고 11월중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對韓통상압력 강화 가능성 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은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와 외자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면에서 국내경제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 요인도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는 국내물가압력과 제조업 신규고용의 감소추이 및 경상수지적자폭의 확대 등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께 향후 노동시장의 준거를 제시할 '노개워'대안, 그리고 체제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문제 등의 경제외적 부담요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통시장의 개방, 수입품에 대한 거부감의 퇴조 등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완성소비재의 수입확대 추세, 빠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과 매출감소와 채산성악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도 예상되는 과제들임.
- 반면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82년이래 국내생산자물가가 95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5%미만에서 안정되어 왔으며 93년이후의 경기상승기에서

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중에도 생산자 물가와 금리수준은 지난해에 비하여 안정적 추이를 보였으며 재정 또한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환경은 다소 여유가 있어 앞에서 열거한 정책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거시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9.3종합대책”에 의하면, 신경제팀의 출범이후 경제운영을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이고 미시적인 조정수단에 의존하기로 함으로써 획기적인 외부환경변화가 없는 한 95년 4분기이후의 경기하강국면이 과거 평균경기수축기간인 6분기를 넘어 중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85년 플라자합의이후 국제환율의 변화와 인위적인 주택건설의 확대 그리고 “6.29선언이후”의 경제민주화과정에서 국내 임금, 물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요소가격변수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경기의 자율반등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요약컨대, 향후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에서 적정성장률의 달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개방과정에서 국내금리와 물가를 선진국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그리고 경기둔화과정 속에서 경기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하는 등 정책운영상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음.

2. 96/97년 경제운영방향

- 93년 1월을 경기저점으로 한 경기확장기간동안 엔고와 세계경제의 호전을 배경으로 균형재정과 안정적 통화공급 그리고 원화절상을 기조로 한 거시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95년 이후 엔화 가치의 약세전환과 설비투자를 비롯한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96년 하반기 중

동향과 전망

성장률은 6.5% 그리고 연간으로는 6.8%, 그리고 97년에는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지나친 경기수축을 경계하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충격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경기와 성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부의 조심스런 경기관리노력이 중요하단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상반기중 재정 및 금융 그리고 원화가치수준의 적정관리 측면에서의 제반 거시경제정책운영은 지난 4분기이후 위축되고 있는 실물경기의 하락을 제한적이거나 둔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상반기중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중 예상되는 경기수축국면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속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820원/\$대와 750원/100엔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환율은 경상거래용 외환수급사정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장여건조성에 힘쓰으로써 통화정책부담을 완화하고 환율변화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제용 외환수요의 증대로 인한 원화가치의 절하압력을 국내자금시장에 대한 원화공급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시중자금환수는 시중자금가용성의 축소와 실세금리의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상수지개선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외환의 투기적 수요에 의한 원화가치의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과정에서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산업의 균형성장이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학력, 고령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시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일이 시급함.

- 임금상승율과 함께 임금수준의 안정이 경쟁력제고에 필수적이나 이의 달성은 생산성범위 내에서의 임금채정과 같은 지불능력관점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사회보장부담, 낮은 실업율하에서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수를 크게 하는 낮은 경제활동인구비율, 짧은 압축성장과정에서 아직 낮은 자가보유율 및 임대주택보급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등 생계비의 안정 관점에서의 대책이 병행될 때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노동관련법상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는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국내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요구됨.
- 높은 국내금리는 그 자체로 산업의 높은 비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내외금리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안정화추이와 성장둔화과정에서의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됨.
- 특히 상반기중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수요둔화와 생산자물가가 안정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수요압력을 증대시켜 물가를 자극하기 보다는 유동성효과에 의한 시중실세금리의 하락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 추가적인 통화긴축은 실세금리의 재상승과 기업투자마인드의 급격한 위축 및 기업부도의 증가 등 실물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상반기중 통화증가는 성장률 하락과 기업의 자금수요둔화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신탁계정의 총통화(M2)편입(M2의 1.4%로 추산)을 고려하면 통화량의 확대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금리가 안

동향과 전망

정추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하반기이후의 통화공급도 자금가수요의 발생에 유의하는 등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균형적 재정정책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현시점에서 재정흑자기조의 건지는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해외차입에 의한 경상적자보전이라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되나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경기중립적 균형재정이 바람직할 것임. 경기하강국면의 심화로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96년과 97년도 예산(14%증가예상)은 당초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시에 효율적 세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상의 세입이나 추경예산(경기조절 또는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목적)을 맞추기 위해 부리한 조세행정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정고유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9/17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 -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해 '96.10.17부터 시행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업무방법서 및 약관 개정내역
9/1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입선택권(INCENTIVE 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 '96.9.3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정책방향'중 주요정책과제로 '97.1.1부터 시행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확정 - 정부가 증권제도 개선방안중 외부감사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외부감사제도 개정방안 주요내용
9/10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신종 어음편입상품(신종CMA) 허용 - '96.9.9부터 시행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상거래를 수반한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어음편입 상품 허용 조치
9/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 최근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9/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 - '96.9.3 발표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96.9.6 개최된 11개 경제부처 1급 회의 내용 및 9.9부터 실시되는 경제부처합동 지방순회 경제정책설명회 개최 일정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9/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DR발행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 '96.9.3 발표된 최근의 경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사항의 세부시행내용
9/6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96.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6.9.6 입법예고되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9/4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정부가 자본시장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10.1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치
9/3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금융제도 관련 규제완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하여 '96.9.16부터 시행키로 한 무역금융제도 관련 규제완화 주요내용
9/1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95.12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96.9.2 입법예고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8/30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 '94.4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97.1.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규칙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8/29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96.8.28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요령 확정 - 통상산업부가 승인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융자금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신청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요령 주요내용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8/2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실 관세제도와 '96년 관세제도 개선 - 재정경제원이 납세자의 권익 및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세환급특례법과 관세법 개편안 주요내용
8/29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선도 중소기업 중점 육성방안 - '96.8.27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반 회의에서 협의된 수출선도 중소기업 중점 육성방안 주요내용
8/2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약 ○ '96년 세제개편 -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상속세법 등 8개 세법에 대한 개편안 주요내용
8/27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96.8.27 통상산업부가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108개 품목에서 53개 품목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8/22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표준화 발전계획 확정 - 통상산업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수적인 EDI표준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확정·시행키로 한 EDI 표준화 발전계획 주요내용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 확정 - '96.9.1부터 시행키로 한 증권제도개선방안중 주식발행 및 유통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
8/19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의 세관용 수입승인서(I/L) 교부시기 자유화 - 무역거래 사후관리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하여 '96.8.19부터 시행되는 외국환은행의 세관용 수입승인서(I/L) 교부시기 제한 폐지 방침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8/16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96.8.17 발전소 건설과 지역개발사업 연계강화 일환으로 마련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8/8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추진 -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통상산업부가 수립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8/6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감성·고기능성 섬유소재 개발계획 추진 - '96.8.5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섬유원료 및 원사산업을 대상으로 한 제7회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 주요내용
8/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방안 - 최근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무역금융 확대방안 주요내용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96.7.31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7/2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방안 - '96.7.24 금융분야 규제완화 일환으로 개최된 금융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회의 요지
7/23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지원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지원강화를 위해 '96.7.25부터 시행되는 품질경영진단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7/22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상품권의 잔액환급 비율 등을 조정하고, 상품권발행 인가관련 업무를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된 상품권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내용
7/19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 확정 - '96.7.19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된 '97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19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은행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행정규제완화정책 일환으로 마련한 일반은행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 내용 ○ 여신금지부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8 관광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6.8.1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내용
7/1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시장 전면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통합을 계기로 추진하는 콜시장 전면 개편내용
7/1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16 개최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된 '96년 금융분야 규제완화추진방안 안건(시안) 주요내용
7/1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회사의 점포 신설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회사의 점포 증설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투자신탁회사의 점포 신설제도 주요 개선내용
7/1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원이 인가한 한국주택은행이 전액 출자한 (가칭)주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설립 관련 내용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관련 규제개혁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대책반회의를 통해 조사 발굴한 분야별 규제개혁 대상과제 현황
7/13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제도 개선방안(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12 증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증권업무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증권발행·유통 과정의 시장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증권제도 개선방안 요약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7/12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 적극 지원 - 통상산업부가 기업체의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활동을 위해 (주)리쿠르트와 (사)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96.9.16 21간 개최하는 미주지역 해외 기술인력 채용박람회에 대한 지원계획
7/9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배치법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6.7.9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내용
7/4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대출행제도 개선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및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규칙 개정내용
7/2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관세환급제도 개편방안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 '96.7.2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주요내용
7/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법 및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 시행 - '96.7.1부터 시행되는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고자 재정된 선물거래법 및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가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리체제의 대폭 개편, 산업피해규제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96.7.1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개정안 주요내용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29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78.12.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그동안 여건변화와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정 필요성에 따라 통상산업부가 '96.6.29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6/27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중소기업청이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물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 870개 사업장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계획

부록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년월중	경제성장률		1인당 GNP	소비		투자		
	GDP	제조업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건설
	전년동기대비(%)		US\$	전년동기대비(%)				
1990	9.5	9.7	5,883	10.1	10.7	25.9	18.8	31.2
1991	9.1	9.1	6,757	9.3	9.5	12.6	12.1	13.0
1992	5.1	5.1	7,007	6.8	6.6	-0.8	1.1	-0.6
1993	5.8	5.0	7,513	5.3	5.7	5.2	-0.1	8.9
1994	8.6	10.4	8,508	7.0	7.6	11.8	23.6	4.5
1995	9.0	10.7	10,076	7.2	7.9	12.4	15.9	9.9
1995.10	6.8	7.5	-	6.4	7.1	7.4	1.5	11.7
11	6.8	7.5	-	6.4	7.1	7.4	1.5	11.7
12	6.8	7.5	-	6.4	7.1	7.4	1.5	11.7
1996.1	7.9	7.8	-	7.2	7.5	7.3	4.3	10.0
2	7.9	7.8	-	7.2	7.5	7.3	4.3	10.0
3	7.9	7.8	-	7.2	7.5	7.3	4.3	10.0
4	7.9	7.8	-	7.2	7.5	7.3	4.3	10.0

무역, 국제수지											
년월중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¹⁾	환율		
	수출 (FOB)	L/C	수입 (CIF)	I/L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종합 수지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달러			년/월말			
1990	65,016	4.2	4.4	69,844	13.6	21.8	-2,004	-2,179	274	14,822	716.4
1991	71,807	10.5	5.2	81,525	16.7	9.4	-6,980	-8,728	3,741	13,733	760.8
1992	76,632	6.6	4.7	81,775	0.3	-10.3	-2,146	-4,529	4,898	17,154	788.4
1993	82,236	7.3	6.2	83,800	2.5	8.5	1,860	385	6,542	20,262	808.1
1994	96,013	16.8	15.7	102,348	22.1	40.3	-3,145	-4,531	2,822	25,673	788.7
1995	125,058	30.3	13.4	135,119	32.0	33.1	-4,749	-8,817	3,034	32,712	774.7
1996.1	9,950	28.2	10.7	12,055	34.5	24.1	-1,082	-1,727	598	33,264	784.3
2	9,928	17.8	-8.4	11,479	16.0	9.2	1,234	-1,954	185	33,115	780.7
3	11,764	17.7	-3.9	12,152	4.2	12.1	100	-892	849	33,451	782.7
4	10,695	5.3	5.9	12,674	14.3	-7.7	-1,513	-2,205	318	35,930	778.7
5	11,332	6.4	-11.1	12,685	7.3	4.3	786	-1,440	10	36,240	787.9
6	11,432	1.7	-7.8	11,707	-1.1	23.5	-500	-1,075	487	36,562	810.6
7	10,156	-3.1	3.8	12,855	13.7	24.1	-	-	-	35,062	813.3

주: 최근 계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장기자본수지 기준

물가, 실업률, 이자율

년월중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이자율		
	생산자	소비자			M1	M2	재할인율	정기예금 금리 ⁴⁾	회사채 수익률 ⁵⁾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 대비(%)					
1990	42(7.2)	86(9.4)	2.4	20.2	18.1	21.2	7.0	10.0	16.5
1991	47(1.9)	9.3(9.3)	2.3	16.9	16.1	18.6	7.0	10.0	18.9
1992	2.2(1.6)	6.2(4.5)	2.4	15.7	32.3	18.4	7.0	10.0	16.2
1993	1.5(2.0)	4.8(5.8)	2.8	10.9	22.1	18.6	5.0	8.5	12.6
1994	2.8(3.9)	6.2(5.6)	2.4	15.5	11.9	15.6	5.0	8.5-10.0	12.9
1995	4.7(3.4)	4.5(4.7)	2.0	9.9	11.6	15.5	5.0	7.5-10.0	13.8
1996.1	3.5	5.1	2.1	-0.1	8.2	12.5	5.0	7.5-10.0	12.0
2	3.7	5.1	2.3	35.3	14.1	14.8	5.0	7.5-10.0	11.9
3	2.2	4.5	2.2	14.4	11.7	14.6	5.0	7.5-10.0	11.8
4	2.0	4.6	2.0	12.8	9.8	14.0	5.0	7.5-10.1	11.0
5	1.7	5.1	1.9	9.0	9.9	15.3	5.0	7.5-10.0	11.0
6	1.6	5.5	1.9	-	9.8	16.3	5.0	7.5-10.0	11.6
7	2.3	5.6	-	-	8.9	17.1	5.0	-	11.9

주: 2) ()내는 12월의 전년동기대비

3) 평잔기준

4) 1년이상 정기예금금리, 단 1988년 12월 5일부터는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금리

5) 금리연동부사채

산업 생산, 수요

년월중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가동률 지수	진국 소매액	소비재 출하 ⁶⁾	국내기계 수주 ⁷⁾	기계류 수입 ⁸⁾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공업용	주거용
1990	8.9	2.6	10.5	15.2	38.8	20.3	55.8	31.4	17.0	49.3
1991	9.7	1.5	7.8	11.4	2.2	20.0	13.9	-9.7	6.7	-16.7
1992	5.9	-1.4	5.5	5.2	-5.2	-5.2	6.4	-10.0	-12.4	-7.4
1993	4.2	-0.6	6.4	4.0	12.1	-5.7	19.3	24.5	15.2	26.7
1994	11.0	4.4	6.1	9.2	26.9	34.2	18.5	-1.3	16.8	-8.5
1995	12.1	-0.4	8.6	7.4	15.8	37.8	21.2	1.0	3.3	-1.2
1996.1	12.0	1.1	3.8	6.2	34.3	24.3	38.0	16.6	23.0	17.8
2	7.8	-1.6	15.6	6.3	6.0	8.5	91.8	-4.0	17.7	-5.4
3	5.4	-3.1	11.1	3.8	-5.1	1.6	30.1	-20.9	-43.8	-20.4
4	8.2	-0.2	8.8	7.1	11.7	0.2	11.8	-11.0	-29.6	-1.1
5	9.9	2.1	9.9	10.4	35.9	1.6	21.4	-18.8	-3.9	-8.4
6	3.6	-	9.8	4.7	21.0	-5.8	7.6	-19.6	-46.5	-16.1
7	-	-	-	-	-	-	-	-	-	-

주: 6) 내수용 7) 내수용, 선박제외 8) 내수용, 일반기계